

# 선동열 넘어선 '수호신' 정해영... KIA 시즌 첫 스윙

17일 두산전 더블헤더 모두 등판 입단 5년만에 팀 최다 133세이브 "스스로 경기 마무리 짓도록 노력" KIA, 18일 5-4 승...3연전 싹쓸이

KIA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해영(24)이 개인 통산 134세이브를 달성하며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갖고 있던 '국보' 선동열(62·132세이브) 전 KIA 감독을 넘어섰다. 정해영의 역투와 함께 KIA도 이번 시즌 첫 시리즈 싹쓸이 승리와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했다.

정해영은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 두 경기에 모두 등판해 하루 만에 2세이브를 획득했다. 1차전에 9회초 마운드에 올라선 정해영은 삼진-삼진-땅볼 삼자범퇴로 5-2 팀 승리를 지키며 개인 통산 133번째 세이브를 따냈다. 입단 5년 만에 종전 타이거즈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인 선동열의 132 세이브를 넘어선 것이다. 많은 이닝을 던지는 투수가 아닌 마무리투수인 만큼 부담스러웠을 법도 하지만 정해영은 2차전에도 등판해 4-1로 앞선 9회말 두산 타자들에게 득점권 조차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허락하지 않으며 깔끔하게 이닝을 막아냈다.

앞서 2020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해 프로 데뷔 2년 차부터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해영은 첫해 34세이브

달성을 시작해 KIA 최초로 2년 연속 30세이브를, 2023년에는 최초로 3년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시즌 KBO리그 최연소 100세이브를 장식하면서 온갖 '최연소', '최초' 타이틀을 쓸어들

고 있다.

정해영은 "위기의 순간마다 선배들이 수비에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뜻 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경기를 하다보면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투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하나씩 차근차근 팀에게 의미있는 기록들을 쌓아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해영의 투혼과 함께 KIA도 살아나고 있다. KIA는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5-4로 승리했다.

선취점은 두산이 먼저 챙겼다. 4회초 2사 3루 상황 두산 강승호가 1타점 적시타를 성공시켜 0-1이 됐다.

곧바로 KIA가 경기를 뒤집었다. 4회말 무사 1루 오선우가 상대 투수 최원준의 공을 정확하게 받아쳤고 2점 홈런으로 이어져 경기는 2-1로 역전했다.

5회초 정수빈한테 솔로 홈런 내줬지만 5회말 김도영-최형우 중심타선이 각각 1타점 적시타를 성공시키면서 4-2로 점수차를 벌였다.

두산의 추격도 끈질겼다. 6회초 1사 2루 상황 안타를 내줘 1실점 했고 7회초에도 1사 1·3루 상황 허용한 땅볼을 처리하는 동안 정수빈이 홈을 밟아 4-4 경기는 원점이 됐다.

끝내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고, KIA는 연장 10회말 1사 1·2루 상황에서 한준수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광주FC, FIFA 징계로 몰수패 위기 ACLE '기적의 8강'도 무효될까

아사니 영입 당시 연대기여금 미납 FIFA 징계에도 선수 등록 진행 축협은 K리그 경기 결과 유지 입장 "고의성 없고 행정 착오로 발생"

광주FC가 K리그시·도민구단 최초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을 성공하는 등 써내려갔던 기적들이 모두 몰수패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국제축구연맹(FIFA)에게 미납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로 선수를 등록, 경기에 임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현재 에이스로 활약 중인 아사니를 영입했던 지난 2023년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미납했다. 지난해 8월 광주가 3000달러를 송금했으나 계좌 오류로 송금이 취소되고 돈이 반환됐으나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모른 채 방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한 이적료 일부를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소속됐던 구단에 일부 분배하는 제도로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FIFA가 광주에 선수 등록금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또한 광주는 모른 채 선수등록을 진행했다. FIFA가 아시아축구연맹(AFC)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징계 공문을 전달했고 협회가 광주에 징계 내용을 전달했지만, 휴직했던



해당 직원이 함께 맡던 업무로 구단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내 광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10명의 선수들을 영입해 등록했고 이미 경기에 출전시키면서 징계를 어긴 것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해당 선수들이 뭘 모든 경기들이 몰수패 처리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발레르제르맹이 ACL2에서 무자격 선수로 출전해 8강에서 싱가포르 라이언시티를 상대로 6-1로 승리했으나 AFC로부터 0-3 몰수패 처리당했다. 이에 ACLE에서 상대했던 팀이나 AFC가 별도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KFA) 측은 국내 징계만큼은 선을 그어줬다.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것을 두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경기 결과를 인정해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FIFA와 AFC를 함께 설득해줄 의사도 덧붙였다.

광주FC 관계자는 "벌금을 내면 FIFA 징계는 해제되는 시스템이다"며 "FIFA도 광주가 고의로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광주·전남 학생들 장애학생체전서 값진 성과 거뒀다

전남 금 14·은 28·동 31개 획득 육상 노현희 등 2관왕 4명 배출 광주 금 16·은 12·동 18개 수확 여자역도 김유나 대회 3관왕 등극

광주·전남 장애인 학생들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전라남도 장애인 학생 선수단은 지난 13~16일 경남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 육상 등 10개 종목에 265명(선수 147, 감독·코치 73·임원 및 보호자 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 14개, 은 28개, 동 31개 등 총 7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18회 대회(금 16·은 35·동 23개)에 비해 총 메달 갯수 1개 줄었지만 타 지역에서 치른 대회에서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다.

전남은 이번 학생체전에서 2관왕 4명을 배출했다.

육상 여자 100mB T11·200mB T11(시각·초중등부)의 노현희(은광학교)와 수영 여자 배영 100m S14·평영 100m S14(지적·중등부)의 김수현(구례여중)이 각각 2년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육상 여자 400m T20·100m x 4계주 T20(지적·중등부)의 강유림(덕수학교)과 여자 800m T20·여자 100m x 4계주 T20(지적·중등부)의 국사광도 각각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육상 여자 800m T20(고등부)의 황다연(함평영화학교), 배드민턴 여자 단식(지적·초등부)의 김예지(함평영화학교)는 금메달 1개씩을 거머쥐었다.

e스포츠 종목에서는 혼성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테니스(개인전) 지적(발달) OPEN(초등부)의 박민혁(소림학교)과 혼성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전) 지적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역도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광주 김유나(선예학교)가 동료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발달) OPEN(고)의 김학준(나주이화학교) 등 금메달 2개 포함 은 6개와 동 6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술린 종목에서도 여자 개인전 SL-6(지적·고등부) 안세연(담양고)과 술린 혼성 개인전 SL-3(지체·초중고등부)의 이민우(순천선혜학교) 등 금 2개를 비롯해 은 1개, 동 9개를 수확하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생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123명(선수 76명, 감독·코치 23명, 임원 및 관계자 24명)을 파견해 금 16개, 은 12개, 동 18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는 지난 18회 대회(금 16·은 12·동 10개) 보다 총 메달 갯수 8개 늘어난 수치다.

광주는 3관왕 1명과 2관왕 4명을 배출했다.

역도 김유나(선예학교 중1)는 여자 -60kg급 지적 OPEN 중등부 스쿼트,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트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에 올랐다.

육상 여자 100m·200m(청각)의 김유은(광주선우학교 고1)과 여자 200m·400m(지적)의 이가은(광주선명학교 고2), 배드민턴 남자 단식·혼합 복식(지적)의 송형우(광주선광학교 고2), 조정 여자 1000m 타임레이스 PR3-ID OPEN·혼성 1000m 타임레이스 PR3-ID OPEN(지적)의 문가영(광주자연과학고 3)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신정아(선예학교 고1)는 여자 -60kg급 지적(발달)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6kg을 들어올려 학생신기록을 경신했다.

육상 여자 장던지기 F20(지적)의 서예진(선명학교)과 탁구 남자 단식 DF(청각)의 김민찬, 탁구 여자 단식 CLASS 11(지적)의 박정효 등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종목별로는 배드민턴이 금 2개와 동 2개 등 총 4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종합 3위에 올랐다. 조정도 금 2, 은 1, 동 1개 등 총 4개의 메달로 종목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최동환 기자